美 비난 않고 정부·여당만 닦달… 번지수 틀린 국힘

국민의힘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집단 체포돼 수용시설에 구금된 사태와 관련,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한·미 협상 결과는 물론, 국내 정국 현안과 연계해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을 정쟁 도구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태가 중간선거를 앞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데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처 등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미국에 700조 원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한데 이어 7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열흘 만에 국민 300여 명 구금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침묵과 검토뿐'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지 수용소는 곰팡이가 슬고 냉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도 악명이 높았던 곳"이라며 "국민 수백 명이 이런 곳에서 강제로 구금된 채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수갑을 차고 버스에 태워져 이송되는 모습은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백조 원 투자를 약속한 직후,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국민은 묻고 있다"며 "700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공동성명 하나 얻지 못한 외교, 일본은 관세 인하 혜택을 챙기는 동안 한국은 역차별을 당하는 현실,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마저 '정쟁'이라 몰아붙였다. 후안무치 그 자체"라며 "국민 300여 명이 타국에서 집단 구금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SNS에 "국민 300여 명이 미국에서 수갑·체인에 묶여 극히 열악한 시설에 구금됐다. 이보다 중요한 외교 현안이 또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영화 보고 특검 타령하며, 직접 챙겨야 할 외교 현안에서는 쏙 빠진다. 그럴 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하면' 미국에 가겠다고 한다.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와 놓고, 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가 네트워크 쌓았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았었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전날에도 "대통령이 한가하게 관봉권 띠지 운운하며 특검 타령이나 할 때인가"라며 "자국민 보호 못 하면 대통령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라며 거들고 나섰다.

안 의원은 같은 날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셰셰외교'를 하겠다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훌쩍 뛰어넘는 7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이 받은 대우는 참담할 뿐"이라며 "한·미 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되었을 뿐"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사태 해결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정부·여당 비판 일변도가 오히려 미국 측의 전략적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정부의 운신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이날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당장 미국의 하원 중간선거가 있다. 불법이민자들을 얼마나 단속하느냐에 대한 실적을 중간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처라든가 투자 사용처라든가 투자이익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아직도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 전에 보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투자처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수익 배분에 대한 합의가 다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조율이 있다"며 "(미국이) 이렇게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금해, 볼모 비슷하게 잡아서 실무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자꾸 야당에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게 대단히 정쟁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일단 미국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이 사태를) 이념적인 프레임에 가두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자신의 나라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측면으로 봐야지 이걸 자꾸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영상 캡처·연합뉴스

한국인 직원 집단 체포 엉뚱한 국내 정국 현안과 연계 공세
트럼프 중간선거·3500억 달러 투자 우위 노림수는 외면
300여 명 열악한 구금시설 갇혔는데도 국민 안위는 뒷전

권성동 체포안 이르면 10일 표결
장동혁 "단일대오로 맞서겠다"

권,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
국힘 전원 반대해도 가결
장 대표 리더십 첫 시험대

권성동(정중앙)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 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첫 시험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이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지만,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상자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고 있어, 영장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요구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9일 보고 이후 이르면 10일 표결이 가능하지만, 이날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 도의적으로 충돌을 피하고 11일이나 12일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가결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를 받겠다"며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다.

민중기 특검팀은 권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통일교의 '정교일치' 교리와 연계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 제공을 승인·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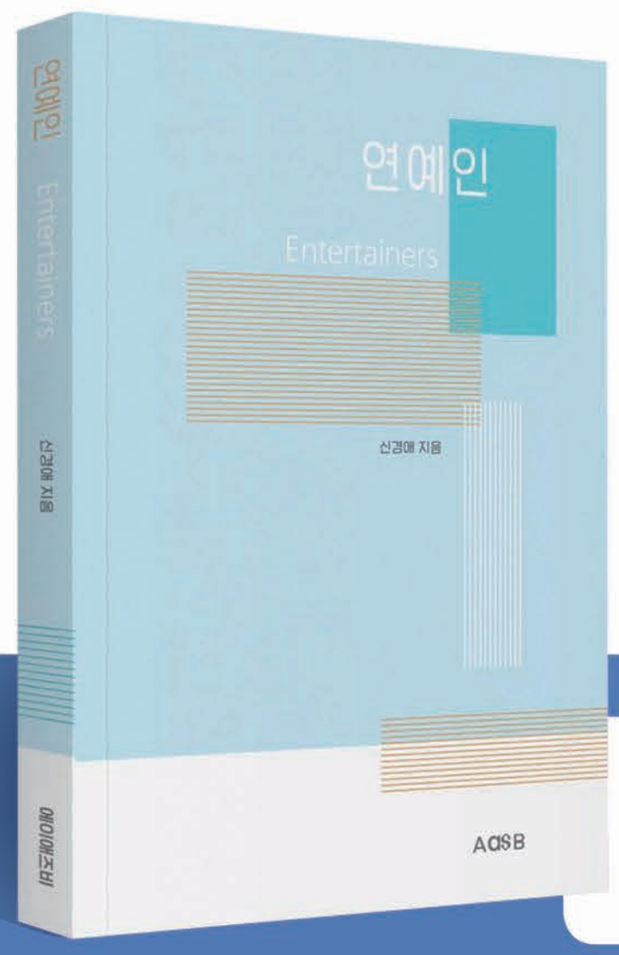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한 총재 소환은 김건희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권 의원 신병 확보 여부와 한 총재 조사 성패에 따라 수사가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 사법 처리 국면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회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대치는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8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며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관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빠르면 9일, 늦어도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보복을 위한 무제한 특검 드라이브"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정치 특검은 당의 심장부를 겨냥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단일대오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공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게'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